

2024 08
제235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여이즈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구정소식
- 04 걸어서 대덕속으로
- 05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6 한여름 무더위 대덕구에서 날리자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
- 08 의정결산
- 10 [인물 인터뷰] 김서환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장
- 11 대덕톡톡

꽃이 지는 이유

강옥희(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그 길 초입에서
꽃이 되어
마냥 기다렸다
그다지 빛나지도
멋지지도 않은
순수한 네가
별같이 좋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만지면 사르륵 안겨오는
내가 예쁘다 말했지
그리고
잔인한 비바람은
예쁜 꽃잎 흔들었지
그 길 끝에서 별 같은 너를 보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8월 5일(제 235호)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2024년 대덕구 진로직업박람회 성료

한남대와 협력… 15개 학과 전공 체험·진로 체험 기회 제공 '호응'



대전 대덕구는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2024년 대덕구 진로직업 박람회 '나에게 떠나는 꿈 여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한남대학교와 협력해 직업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는 대덕구 청소년 6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남대학교 15개 학과 전공 체험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진로 체험 △가상현실 직업 체험 △대덕혁신교육지구 사업 홍보 및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남대학교 졸업생인 350만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 3D펜 장인 사나고(SANAGO)가 행사에 참여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덕구 관계자는 “이번 진로직업박람회를 통해 우리 대덕구의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대덕혁신교육지원센터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도입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해 만든 지원센터로, △마을과 함께 배우는 교육 과정 운영 △여가 활동 지원 △진로 체험 교실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밭대로 내 자전거도로 개선 박차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공모 선정
보행자 도로 분리·전용 횡단도 설치 등

대전 대덕구가 ‘2024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선정돼 한밭대로 일대 자전거도로를 개선한다.

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한밭대로의 노후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오는 9월부터 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한 상가가 밀집된 한밭대로의 특성을 고려, 상가 출입과 보행자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하고,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설치해 사고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10월 31일까지 접수… 대덕 환경·역사·문화·맛집 등 주제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 슬로건(slogan)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덕구의 역사, 문화, 관광, 환경, 맛집 기행 등의 주제로 대덕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역의 특색과 매력을 담은 1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대덕구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2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구는 심사를 거쳐 △대상 1

명(총 70만원) △최우수상

2명(총 80만원) △우수상

14명(총 280만원) △장려상

5명(총 50만원) △아차상

4명(총 20만원) 등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ddcen201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우리 대덕구의 멋과 매력을 알리고, 지역 홍보콘텐츠를 발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좋고 친근한 짧은 영상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돌봄 필요 어르신 ‘케어안심주택’ 조성

구-LH 대전충남지역본부 맞손
고령자 편의·주거 기반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대전 대덕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덕구 케어안심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케어안심주택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덕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을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해 운영한다.

LH는 중리동에 지상 4층 규모의 12호 고령자주택을 공급하고, 구는 입주자 선정 및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입주자에게 제공한다.

고령자주택은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복도 핸드 레일, 주택 내 안전바 등이 설치돼 있다.

송촌도서관 “인문학적 성찰 함께해요”

오는 19일부터 10월까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024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 낭독·해석 등
문학적 성찰 공유

대전 대덕구 송촌도서관이 오는 10월까지 송촌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강연과 체험, 지역 인문 자원탐방 등을 결합해 인문 정신문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11회에 걸쳐 운영한다.

2024년 신춘문예 희곡 당선작들을 함께 읽고 해석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나를 돌아보고 사회를 이해하는 인문학적 성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접수는 송촌도서관 대덕구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이뤄지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은 대덕구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송촌도서관(☎ 608-58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이시직공 정려각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488-1)에 있는 조선 중기의 문신 이시직(1572~1637)을 기리기 위해 세운 누각이다. 1994년 6월 7일 대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됐으며, 연안이씨 죽창공파 종종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시직은 1624년(인조2) 문과에 급제했으며, 같은 해 이괄의 난이 터지자 충남 공주까지 인조를 수행했다. 이후 종묘서직장을 거쳐 성균관 전적 등 여러 벼슬을 지냈다. 하지만 1636년(인조 13)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인조가 피신한 강화도가 함락되자 이를 비관해 자결했다. 정려각은 1동으로 앞칸 1칸, 옆칸 1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4면에 홍살을 둘렀다. 안에는 정려편액과 중수기가 보존돼 있는데, 중수기에 따르면

청년배달강사 ‘대덕쌤’ 위촉

한남대 사범대 예비 교사 18명 위촉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평생학습 및
기초학력 보완



대전 대덕구는 대덕구 청년배달강사 ‘대덕쌤’ 18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배달강사 ‘대덕쌤’은 미래세대의 평생학습 지원과 동시에 지자체·대학 간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중 학교 현장 실습을 마친 예비 교사 18명을 배달강사 ‘대덕쌤’으로 선정,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9곳에 여름방학 기간 중 4주간 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대덕쌤’은 주 3회, 회당 2시간씩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강사의 전공과 관련한 창의적 활동 및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흥미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보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나서

고유 목적 사용 여부 조사
규정 위반 142건 발굴·9억 9000만 원 징수

대전 대덕구는 지난 1~6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인 개인과 법인의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 규정 위반 142건을 확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취득한 물건 중 일반 감면 481건과 지식산업센터감면 58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지식산업센터 감면 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 조건에 맞는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3차 사업 관련 장부 확인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규정 위반 142건에 대한 세금 9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부합해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누각이 1751년 중수됐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구조는 장대석 기단 위에 8각형의 주춧돌과 짧막한 등근 기둥을 세웠고 이익공 계통의 공포를 올렸다. 창방 위에는 장화반(長花盤)을 놓아 주심도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건강하게 맛있는 영양돌솥밥 맛집

신탄진 늘봄식당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38-1(신탄진동 160-2) / 042-932-7282
- 가정식백반 9000원 영양돌솥밥 1만원(2인 이상)
계장영양돌솥밥·육회비빔밥·버섯전골 1만3000원
(2인 이상) 한방삼계탕 1만5000원
- 영업시간: 월~토 10:00~22:00
(브레이크타임 15:00~17:00), 일 10:00~15:00



‘푹푹 찐다’라는 표현도 모자라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8월이다. 폭염에 잔뜩 늘어진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달고 찰진 밥 한술이 그리운 시간이다.

대덕구 신탄진동 늘봄식당(대표 박영호, 남명심 부부)은 손님들에게 고기류, 백숙, 버섯전골 등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이 집의 메인메뉴는 옹골진 돌솥에 영양이 듬뿍 담긴 특별한 영양돌솥밥이다.

예로부터 ‘솥밥’은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놓은 음식 중 하나였다. 정성스레 온도와 불 조절을 하며 완성한 솥밥엔 따스한 온정이 담긴 것은 물론 몸에 좋은 천연재료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 영양 보충에도 제격이다.

늘봄식당의 ‘영양돌솥밥’에는 흑미·해바라기씨·호박씨·당근·감자·조·콩·대추 등 10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간다. 매일 일정 분량의 재료들을 번거

롭지만 일일이 손질해 놓고 주문 즉시 밥을 짓는다. 그래야 각각의 식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윤기가 흐르고 밥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또한 ‘영양돌솥밥’은 봄에는 봄나물, 겨울에는 전복 등 계절과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재료들과 조리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지만 늘봄식당은 이러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여기에 구수하고 담백한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열무김치, 어묵볶음, 제육볶음, 멸치볶음 등 여덟 가지 정성스러운 반찬과 함께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진다. 특히, 조기는 손님 1명당 한 마리씩 튀겨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정감 있는 식당이다.

늘봄식당은 지난 2000년 박영호 대표의 제수씨가 창업해 9년간 운영해 왔다. 이후 2009년 7월 박 대표 부부가 인수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호와 메뉴로 24년간 이어온 전통 있는 영

양돌솥밥 맛집이다.

늘봄식당은 식재료 준비에도 진심이다. 채소류와 생선류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말린 재료 등은 신탄진 대형마트에서 항상 신선하고 최상품만 엄선해서 직접 장을 봐오고 있다.

여기에 후한 인심은 덤이다. 삼계탕에는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한약재도 듬뿍 넣어 제대로 끓여낸다. 특히, 반찬은 배가 불러도 계속 더 집어 먹게 만드는 맛과 푸짐함이 넘쳐나며, 식사 후 제공되는 수정과도 일품이다. 고물가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 손님들에게 늘 미안하다는 이들 부부는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 장사’가 아닌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채워나가는 그런 늘봄식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두부 본연의 맛 한가득

신탄진 콩마을 식당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23번길 31 중앙연립 / 042-931-2115
- 김치·된장찌개 7000원, 콩국수 8000원, 순두부·청국장·비자찌개 8000원·두부두루치기 1만2000원
(2인 이상), 버섯두부전골·해물두부전골(小)
2만5000원(공기밥 별도)
- 영업시간 : 06:00~20:30(브레이크타임 15:00~17:00)
정기 휴무 : 연중무휴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콩을 재료로 만든 음식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물성 지방이 들어 있어 ‘몸짱’을 꿈꾸는 사람은 물론 일반 인들도 많이 찾는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다.

20여 년 넘게 오직 한자리에서 직접 만든 두부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콩마을식당(대표 김경옥)은 지난 2002년 6월 문을 연 가정식 두부 요리 전문점이다.

이 집은 22년 전통을 대변하듯 빛바래고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건물 외벽 페인트칠만 봐도 노포(老鋪)의 향이 물씬 풍긴다.

콩마을식당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주인이 직접 전통식으로 손두부를 만든다는 데 있다.

건강식에 초점을 두고 두부 요리 전문점 창업을 결심했다는 김경옥 대표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옛날 방식으로 두부를 만든다.



콩을 직접 갈아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두부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매일 또는 하루걸러 정성스레 두부를 빚어내고 있다.

20여 년의 연륜과 내공으로 다져진 기술이 그대로 녹아든 두부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이를 점심시간부터 문전성시를 이룬다.

또한 이 집의 해물두부전골은 ‘낙지탕’이라고 과언이 아닐 만큼 낙지가 듬뿍 들어간 것은 물론, 주문 즉시 신선한 100% 국내산 콩을 갈아서 만든 콩국수는 진하고 담백한 데다 생면을 사용한 듯 찰지고 맛있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이밖에 음식이 나오기 전 맛보기용 두부와 묵은지, 냄비 바닥이 보이기 바로 직전 나오는 순두부 등 콩마을의 특별한 서비스가 손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콩마을식당의 또 하나의 강점은 맛보기용 두부를 포함해 총 9가지가 나오는 곁들이 반찬이다. 시댁이 있는 동구 산내동에서 남편이 직접 재배한 채소와 제철 산나물을 공수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시어머니도 소일(消日)삼아 청국장을 직접 띄우신다고.

특히, 쌀은 충남 예산에 사는 친정 오빠가 농사지은 쌀을 필요할 때마다 즉시 도정(搗精)해서 보내주고 있다. 그야말로 시댁·친정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착한 가격으로 두부 요리를 마음껏 맛볼 수 있다 보니, 코로나19 시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는 김경옥 대표는 “앞으로도 변함 없이 손님들이 맛있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음식에 더욱 깊은 정성을 들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름휴가, 멀리 가끼 말고 대덕구로 오세요"

로하스 야외수영장 · 공원 물놀이장 · 계족산 황톳길 등 대덕구 내 휴가지 '눈길'

매년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길어지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2024년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라고 한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전국적으로 한낮 최고 기온이 30°C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수영장, 계곡, 해수욕장 등에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로 인해 피서를 떠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대덕구가 부담 없는 비용으로 무더위를 식힐 방법을 마련했다. 워터파크 뜻지않은 야외수영장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천국 공원 물놀이장, 여름철 산책하기 좋은 계족산 황톳길,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대청호 오백리길 등 대덕구에 마련된 피서지를 소개해 본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로하스 야외수영장



더위를 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물놀이'다. 대덕구는 7월 석봉동 '로하스 야외수영장'을 개장했다. 로하스 야외수영장은 성인용 풀장과 어린이용 유아 풀장 모두 마련돼 있다.

또한 스워터슬라이드 스파라솔 스펜의점 스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어 작년 누적 이용객 2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로하스 야외수영장은 오는 18일까지 방학 시즌을 맞아 상시 운영한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어린이의 천국

공원 물놀이장



쾌적한 공원 환경과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물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석봉 어린이공원 △범샛골어린이공원 △대청공원 △송촌체육공원 등 지역 4개 공원에 물놀이시설을 준비했다.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시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기상 상황과 가동 시기에 따라 가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구는 물놀이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 관리 요원을 공원별 2~4명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산호빛체육공원 △새터어린이공원 △송촌어린이공원 △동춘당역 사공원 △비래근린공원 △청솔어린이공원 △만남어린이공원 등 7개 공원에도 음악분수, 쿨링포그(cooling fog), 연못, 벽천 등을 운영해 공원 이용객들의 더위를 식혀 줄 계획이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한걸음,

계족산 황톳길



대덕구 장동산림욕장 내 선양소주가 조성한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 관광 100선에 4회나 선정될 정도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맨발 걷기의 명소다.

계족산 황톳길은 장동산림욕장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며, 순환 임도까지 올라가는 길 그리고 순환 임도를 따라 임도 너비의 절반 정도가 황토로 포장돼 있다.

급격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없는 계족산 황톳길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또는 아이들과 함께 걷기 안성맞춤이다.

또한 황톳길 시작 입구에는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신발장과 세속 시설이 설치돼 황톳길을 걸은 후 마음 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으며, 올해 4월 장동문화공원 주차장 시설 공사도 완료돼 주차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대청호 오백리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천천히 산책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대청호 오백리길 1구간'을 추천한다.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댐 물 문화관을 시작으로 제1 보조댐을 지나 지명산과 비상여수로댐, 민평기 가옥을 거쳐 갈전동 생태습지공원과 이현동 생태습지공원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여름의 신록이 짙은 대청호의 풍경을 배경 삼아 드라이브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번잡한 도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대덕구에는 여름의 더위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다양한 피서지가 마련돼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멀리 피서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즐거운 추억도 남기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덕구에서 올여름 휴가를 즐기는 건 어떨까.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



‘일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희망 버팀목’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난 4년여간 달려온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

이 병원장은 대전병원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이용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을 만나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소개 및 운영 방향, 향후 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 용 만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

Q ‘근로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우선 치료 초기 단계부터 가정과 직장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척추 심부근 및 균형능력 강화장비 등 최첨단 장비를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와 1:1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과제 활동을 통해 최대한 손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부재활프로그램 전문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능력평가·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현업 적응 훈련으로 조속한 직장·사회복귀 지원이 가능한 점도 강점입니다.

이밖에 대표적인 진료과로는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수술, 어깨 관절경수술 등 다양한 외과적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술 이후 재활의 학과의 협진을 통해 직장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대전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병원의 자랑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회공헌 마인드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대덕구의 어려운 기관과 이웃들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 물품 기부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덕구 관내 65세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법동돌봄건강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기초 건강 체크, 1:1 맞춤형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병원 의료진들이 직접 찾아가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법 교육과 건강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물리치료사들이 이주외국 인복지관을 방문해 외국인 이웃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6년부터 기부하는 건강 계단 운영 및 적립 기금 활용 취약계층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지원, 2021년부터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중독가정 아동들을 위한 희망 선물 나눔 등 소외당하는 아동들의 아픔을 보듬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현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40억 원을 들여 내원하시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안전한 치료 환경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해 왔으며, 연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기계설비 등 병원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내진 보강 등과 함께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최신 시설로 개축했습니다. 또, 고객이 편리하게 재활치료 및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동선으로 재활치료실과 건강관리센터를 확장·재배치할 계획입니다.



Q 향후 병원 운영계획 및 대덕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산재보험 보험자병원으로서 선도적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저희 병원의 목표입니다. 그 핵심 열쇠는 고객 감동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4년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인정받는 ‘4주기 의료기관 인증’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8월 말 인증 심사에 대비해 그간 △TF팀 운영 △치료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전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장애 진단 전문 의료 기관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장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전병원은 일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희망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 “성실 의회 구현 최선”

본회의 등 회의에 전원 개근 조례안 등 76건…인당 9.5건 “후반기 내실 다져 책무 완수”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 8명 전원은 그동안 열린 각종 회의에서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실제 의원들은 원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간 2022년 8월 제264회 임시회부터 최근 제276회 임시회까지 열세 차례의 회기 동안 총 122회(본회의 50회, 각 상임위원회 40회, 특별위원회 22회, 행정사무감사 10회) 회의에 전원 개근했다.

또 구정 전반과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와 각종 제언이 다수 이뤄졌다. 의장 제외 의원 7명 전원은 구정질문에 4회씩 모두 28회 참여한데 이어 모두 20회에 걸쳐 5분자유발언대에 섰다.

더불어 ‘현장 중심의 실천하는 의회’란 의정구호 실현과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운영 점검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9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연수 7회를 각각 진행했다. 의사소통과 응급처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도 각각 추진했다.

입법 활동에도 애썼다. 의원들은 그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모두 76건 발의 했다. 인당 약 9.5건에 해당한다. 회의 질서 유지와 사무 감독 역할에 중점을 둔 의장을 제외하면 인당 약 10건이다.

이밖에 연구모임인 고향사랑연구회와 공원사랑연구회는 연구용역과 집중 토론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도 했다.

김홍태 의장은 “성실함은 모든 것의 기본이고 전문성 강화는 구민 신뢰 제고를 위한 뼈대와 같다”면서 “후반기에는 내실을 더 단단히 다져 구민 이익 대변과 지역 발전 견인이란 책무를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원별 의정활동

(조례안 발의·5분자유발언)



박효서 의원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5분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요청-

△심리적·정서적 지원 체계 강화-전문가·주민 참여한 멘토단 등 운영 △체계적 교육 기회 제공-진로·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활동 등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기관·단체·시설·전문가·주민 등이 함께한 사회적 안전망 등 제시



조대웅 의원

5분 보행 환경 개선 대책 제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 강화와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보행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등

5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강조-△연축동

혁신도시지구에 AI 관련 기업 유치 주문 △AI 산업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원 요청 △청사 이전 뒤 AI 산업 육성을 목표로 재원 계획 당부



이준규 의원

조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 사항



김기홍 의원

조례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를 목적.

조례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식품·생활

용품 기부 활성화와 기부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내용

5분 골목상권 성장지원센터 설립 역설-

더 효율적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통합성 · 전문성을 갖춘 지원기관 설립 요청



양영자 의원

조례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와 보수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유승연 의원

조례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과 방지 사체 신속 처리 내용 명시

조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과 출동 도착 시간 단축 등을 도모

5분 신탄진 시장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장날 안전요원 배치 △상인회 거리 정화 유도 △도로 일정 구간 노점상 전용 구역으로 지정 △노점상 영업시간 지정 등 제안



현원으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1998년 발족해 26년간 “티끌 모아 태산” 실천
12개 동 위기가구 선정해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
누적 배분액 4억 810만 원 돌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도
김서환 회장 “우리 사회 원동력은 나눔”… 일천원 이웃사랑회 후원 당부



김 서 환
일천원이웃사랑회 회장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줄 음료수를 구매하고자 ‘천 원’을 들고 편의점에 방문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천 원으로는 원하는 음료수 한 캔도 구매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다. 천 원으로는 빵집에서 빵 한 개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겨울철 대표 간식 봉어빵이 한 개에 천원으로 판매되는 등 요즘 천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천원으로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속담처럼 지역 주민들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를 모아 26년간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단체가 있다.

대전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회장 김서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천원의 가치가 함께 모여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지난 1998년 3월 대덕구 공무원 회원으로 발족했다가 이듬해인 1999년 1월부터는 민간운영위원회 운영체계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덕구 일천원 이웃사랑회’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는 김서환 회장은 9년 넘게 회장직을 맡아 후원회원 및 후원 계좌 늘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년간 변함없이 매월 50계좌 후원을 이어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로 만 76세인 김 회장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매우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20대 초반인 1969년, 학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던 김 회장은 이런저런 사유로 학업 대신 직장생활에 이어 캐주얼 구두 사업으로 자수성가를 이뤘다.

김서환 회장은 “조국 근대화 사업이 막 시작됐던 시점으로 서울 도심이 온통 판자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한 직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요”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저의 작은 정성을 나눴을 뿐입니다”라며 겸손의 미소를 지었다. 이 단체의 2024년 5월 말 기준 후원회원수는 2793명이며, 후원 계좌 수는 4888계좌(1계좌당 1000원)에 이른다. 월마다 약 500만 원씩의 후원 금액이 모이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피자 못할 사정으로 국가·지자체의 공공부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부득이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다.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는 김서환 회장을 포함 총 24명의 운영위원과 각 동별로 지원 대상 적절성 여부를 살피는 심의위원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금 입금 등 나머지 행정 사항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매월 대덕구 12개 동에서 위기가구를 선정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말 현재 누적 배분액 4억 810만 원에 이른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천원의 힘은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고 있다.

또, 대덕구 일천원 이웃사랑회는 △2012~2015년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735만원 △2017년 실버카 지원 110대, 조손 한부모가정 지원, 청소년장학금 지원 1200만원 △2018년 저소득층 전자레인지 지원 60개 642만원 △2023년 저소득층 발열내의 지원 272개 600만원 등 26년

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지역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 왔다.

특히, 이 단체는 이처럼 꾸준하고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보건복지부와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나눔 분야 최고의 상이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치료를 돋고 있는 김 회장은 후원 회원수와 후원 금액이 갈수록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12개 동을 돌며 자생단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다고 한다. 여러 단체에서 봉사나 기부활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 데다 개인정보 노출 부담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덕구만의 색깔을 가진 ‘일천원 이웃사랑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김서환 회장은 대덕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 홍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의 최소 단위는 없다는 것을 대덕구 일천원 이웃사랑회의 후원 활동이 이를 증명해 냈습니다”라며 “마치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천원 후원회원이 배가돼 나눔의 기적도 점점 더 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 일천원이웃사랑회

- 후원문의 : 042-608-6745
- 후원금 매월 1000원(정기후원)



비움 뒤 그린

기 간 2024년 5월 1일(수) ~ 11월 30일(토)	내 용 매월 주어지는 미션에 따라 개인 SNS 채널 내 녹색생활 실천 모습 인증하고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참여방법 ① 월별로 부여되는 미션에 따라 개인 SNS에 인증 사진 업로드 ② 비움 뒤 그린 인증 링크 (https://answer.moaform.com/answers/MYmjJx)에 본인 게시물 URL 제출	
리워드 매월 추첨하여 커피쿠폰 등 증정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급	문의전화 대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42-608-5472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온가족스마트 건강온

대전시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북부주민건강센터 개소 VR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접목한 북부주민건강센터가 드디어 개소합니다.

개소일시 2024. 7. 1.(월)

운영방법 **시범운영** 2024. 7. 1. ~ 8. 31
* 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 보완공사 등

정식운영 2024. 9. ~

운영시간 09:00 ~ 18:00 / 월 ~ 금(공휴일 휴무)

스마트 건강측정실(사전예약필수)
AI모션인식 측정 및 분석→모바일 앱(APP)관리

실시간 자가건강관리 측정존(바이오그램존)
AI분석 데이터→실시간 모바일 앱(APP)관리

스마트 어린이 건강체험관 “어린이 건강 키움 놀이터”
인공지능(AI) 및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형 건강 체험 공간

주 소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
문의전화 ☎ 042-608-4434~4436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시행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기 간 4.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시술기관 전국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비용 선납부 → 보건소 방문 신청 → 시술비 지급

문의사항 대덕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 042-608-548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아·맘·때!

이제, 마음건강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서비스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 기한 : 2024. 8. 1 ~ 9. 2. 까지

● 납세 의무자 : 7. 1. 일 현재 대덕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법인

● 납부 방법

- **이체 납부**
 - ▶ 고지서 양면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이체
 - ▶ 고지서 하단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인터넷 납부**
 - ▶ 웨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e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카드에서 납기 내 자동이체

* 납세자 외 라인이 주민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가능하나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별도 문의

문의 : 대덕구 세정과(☎ 042-608-624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이 꿈의 시작입니다**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
→
사례 회의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분석
개입영역 구체화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아동발달단계별 개입 계획 수립
개입영역 구체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소 화교 어린이집 복지관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가족 정서·행동

사례관리 >> 종결

신청 방법

- 대덕구 드림스타트 방문 / 전화신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대덕구청 ☎ 042-608-6981-7
- 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제 대덕구 곳곳에서 전기차 충전하세요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공영주차장	주소	공영주차장	주소
대덕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문평동 80-1	증리행복1길 공영주차장	문평동 80-1
산호빛공원 지하주차장	석봉동 780	증리구봉 공영주차장	석봉동 780
산종골 공영주차장	읍내동 11-1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읍내동 11-1
회덕동 공영주차장	읍내동 247-3	송촌대양 공영주차장	읍내동 247-3
읍내어울림 공영주차장	읍내동 575-5	송촌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읍내동 575-5
동춘당생애길 공영주차장	증리동 507-1	송촌 공영주차장	증리동 507-1
한촌공원 공영주차장	증리동 223-1	비래동 제1공영주차장	증리동 223-1
증리정려과 공영주차장	증리동 498-2	비래동 32번길 공영주차장	증리동 498-2
증리만남 공영주차장	증리동 180-1	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증리동 180-1

문의 : 대덕구 교통과(☎ 042-608-529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2024년 1월 30일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가 신설·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31일부터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개정된 규칙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 39조 / 시행 24.7.31.)

- 제조소등 내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제19조의2제1항)
-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 지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13)
-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제19조의2제4항)
-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 따르지 않은 자 - 과태료 부과(제39조의1항제7호의3, 제39조제1항제7호의4)

문의 : 소방본부(☎ 042-270-6134)
대덕소방서(☎ 042-270-1528)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간편하게”
맞춤형 온라인 사전예약제 실시**

대한민국 여권
REPUBLIC OF KOREA
PASSPORT

● 대상 : 만 7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 신청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 여권접수 온라인 예약

● 예약방법 : - 예약 시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정보 필요.
- 예약 시 최대 4명(성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예약 가능.

문의 : 대덕구 민원정보과(☎ 042-608-6706~7)

대덕구 북부권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개소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소

일 시
시범운영 2024. 07. 01. ~ 08. 31.
✓ 시범운영: 수·금요일(주 2회) 09:00 ~ 18:00 / 사전 예약제
정식운영 9월 초

장 소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

치매조기검진·치매환자지원 서비스 신청하러 오세요~!!

- 치매 선별검사(CIST)
- 치매 상담·등록관리
-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
- 조호물품, 치매치료관리비, 스마트태그 지원 등
※ 검사 및 지원서비스 무료이며, 사전에 전화 예약 후 방문

예약문의
대덕구치매안심센터 ☎ 042-608-5426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더위가 짙은 여름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등이 들어온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릅니다.	10시~12시 2시~4시에는 핫살이 뜨거워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도도록 하지 않습니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의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난방비를 아낄립니다. ※ 적정 실내온도范例: 26~28°C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기버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헉터 등 시원한 찬소를 이용합니다.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한기장다니 물을 뿐만 아니라 온도를 낮춥니다.

**빈틈없는 국가안보
을지연습**

을지연습이란?
전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실전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연1회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

2024년 8월 19일 ~ 8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